

Dead Body Problem

캐릭터 키워드

오컬트 신봉자 / 동정하기 어려운 희생양 / 소문난 거짓말쟁이?

“제이슨, 혹시 널 죽인 건, 베, 베카, ... 헉, 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짜, 아얏!”

캐치프레이즈

- 죽은 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편이’ 좋다!

외관

신장/체중 : 158cm / 42kg

머리색/눈색 : ‘깜짝 놀랄 정도로’ 새빨강 / 아마도 회색



- 술 많은, 불타는 것처럼 새빨간 머리를 죄다 뒤로 넘겨 양 갈래로 땀았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두꺼운 안경에 몸보다 한참 크게 맞춰 험령한 교복, 평범하기 그지없는 흰 양말과 올드한 스타일의 메리 제인 구두. 좋게 말하자면 단정하고, 좀 더 솔직해지자면 ...따분하고 지루하다. 별 특이할 요소도 없이, 그림으로 그린 듯한 ‘찐따’. 옆에 끼고 다니는 저 빌어먹을 워저 보드만 제외하면!

이름

헤더 C. 레오니데스/ Heather Cassia Leonides

성별

여성

생년월일/학년

1989년 11월 7일(14세) / 10학년

교내평가

- 찐따, 찐질이, 아웃사이드, **creep**.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복도를 지나가면 열 번쯤 어깨가 치이고, 끝이 닳은 메리 제인 구두는 가끔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늘 새 것 같은 워저 보드도. 그래, 워저 보드! 대체 어떤 또라이가 공책들 사이에 워저 보드를 끼고 다닌단 말야? 유령, 점술, 도시 전설과 악마들. 헤더가 그런 것들에 심취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믿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새빨간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땀은 앙상한 꼬마를 보고서 누가 ‘13 고스트’ 를 떠올리겠는가? ‘삐삐 롱스타킹’도 과분하지!

성격

성실한 열간이 / 겁쟁이 치킨 / 끈질긴 거짓말쟁이?

- 멋없이 꼼꼼하게 땀은 머리와 두꺼운 안경으로부터 전해지는 첫인상처럼, 헤더는 성실하다. 시덥잖은 작업질과 서열 정리, 또래를 향한 마운팅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또래들 틈에서 혼자 300페이지가 넘는 양장본 책을 들여다보거나 발발거리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자면, 남들의 두 배는 열심히 사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모범생이냐면...그건 또 아니다. 절대 아니지. 헤더가 하루종일 몰두하는 일이라고는 별 실없는, 그러니까 저학년들 사이에 퍼진 ‘학교의 유령들’ 소문을 쫓아다니거나 괴상한 다우징 로드나 EMF 측정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저쪽 세계와 연결된’ 장소를 찾는 게 전부다. 당사자는 진지한 모양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웃길 뿐이다. 대체 21세기 미국의 그 어떤 고등학생이 유령과 저주를 진지하게 믿는단 말인가?

- ‘그런 주제에’, 혹은 ‘그래서’인지, 겁은 놀랍도록 많다. 누가 뒤에서 기척 없이 말만 걸어도, 그 자리에서 폴짝 뛰어오르다 못해 구석진 곳을 찾아 도망갈 정도다.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주눅 든 얼굴이 되며, 사람과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는 꼴은 불쌍할 정도라, 어떻게 봐도 영적인 힘을 가진 신비로운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더 비웃음을 사는 걸지도.
- ‘삼십 년 전에 피아노에 깔려 죽은 상급생의 영혼이 동측 별관을 맴돌고 있으니 위-령으로 그를 위로해줘야 한다’, ‘저쪽 세계로부터 메세지를 받았는데, 오늘은 신발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끈을 조심해야 하는 날이다’, ... 헤더가 종일 늘어놓는 말들은 다 이렇다. 어지간히 멍청하거나 어지간히 어린 애가 아니라면, 듣자마자 아, 거짓말이구나, ... 하고 감이 오는 그런 말들. 아무도 믿지 않는데도 꾸준히 반복되는 거짓말과 꾸며낸 것 같은 이야기들. 바로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애를 싫어한다. 미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의 벚나무 이야기를 질리도록 들으며 자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면. 심지어 ‘조지 워싱턴’이 설립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들’이라면 -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에 그런 일화는 써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나, 그 조지 워싱턴과 이 조지 워싱턴이 엄연히 다른 사람이란 사실, ... 사실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디테일은 ‘찐따’나 신경쓰는 거다- 모두 거짓말쟁이를 싫어하는 법이니깐. 아무도 그 애를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징

- #영터리 영매

헤더는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자면- ‘강령술’사다. 그래, 1920년대 언저리까지 유행하다 해리 후디니와 제임스 랜디의 못매를 맞고 빈사 상태에 빠져 시시한 공포 영화의 소재나 얼빠진 틴에이지들의 담력 체험용 ‘놀이’로 전락한, 바로 그 강령술 말이다. 그 애가 토요일 저녁마다 집의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켜 채 혼자만의 교령회를 연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커튼을 친 창문 밖까지 흘러나오는 타르티니의 연주는 덤이다. 본인은 매번 무언가 영적인 교류를 느꼈으며 직접 대화하는 것도 언젠가 가능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 긴 변명을 좀 축약하자면 결국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다는 말이다.

이 영터리 영매를 믿으려거든 정말, 정말, 정말 멍청하거나, 정말, 정말, 정말 절박한 사람이어야 할 테지만, 여긴 스탠튼이다. 할렘이나 사우스 브롱크스가 아니라! 그러니 아무도 그 애를 믿지 않는다.

- 점술

그래도 몇몇 얼간이들은 가끔 헤더에게 가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좋아하는 가수의 다음 음반이 언제쯤 나올지 따위를 점쳐 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럼 헤더는 기뻐하며 찻잎 점을 쳐 준다 -가끔은 쌀알이나 유리 수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날씨와 관련된 점은 꽤 정확한 것 같지만, 나머지 분야는 영 광이다. 정말 최악이었던 사건은, 베카 몬테즈의 패거리 중 한 명이 최근 작업을 거는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물어본 일에 헤더가 진지하게 '물론이지. 두 사람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게 느껴져!' 같은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일주일 뒤에야 그 남자가 유부남에 한 명의 아이와 백만 달러의 빚을 가진 폐차 중의 폐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헤더는...

그냥, 그 뒤로 헤더의 학교 생활이 두 배는 더 힘겨워졌다는 사실만 말해 두겠다.

- #냄새

언제나, 물에 젖은 흙과 껌인 풀, 향 같은 것을 태운 냄새가 난다. 손톱 밑에는 종종 새까맣게 흙 얼룩이 저 있다. 아주, 아주, 아주 가까이 가야만 희미한 비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대부분은 헤더 레오니데스에게 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애가 하루에 스무 번 넘게 손을 씻고 두 번 목욕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관심도 없다.

#사건

처음 '시체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틴달로스의 사냥개니 웨어울프니, 무언가 악마적인 존재가 연루되어 있을 거라며 또 예의 수상쩍은 기계를 들고서 마트 주위를 배회했었다. 당연히 경찰들에게 걸려 쫓겨났지만. 그 업보인지, 지난 주 주말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모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무슨 일인지 꾸역꾸역 끼어 사람들로 이루어진 원 안을 들여다본 결과, ... 케니스 머독의 시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헤더는 그 자리에서 토했다.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그 곳에서 무언가 악한 기운을 느껴져서 토한 거라지만, 누가 봐도 시체에 쫓아서 그런 게 분명했다.

- #사라에 대한 이야기

사라 존스. 여름마다 색이 짙은 열매를 맺는 키 큰 오렌지와 체리 나무, 회양목 울타리, 작은 허브들과 수선화, 디기탈리스와 히아신스, ... 과장 좀 보태자면 브롱스의 뉴욕 식물원이 부럽지 않은 정원을 가꾸던, 완고한 보수주의자이자 연로한 가톨릭 신자. 토트 힐의 오랜 거주민이라면 그녀가 해마다 굵던 체리 파이의 맛과, 자전거 바퀴를 나무 울타리에 부딪히지 말라며 꾸짖던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기억할 테다. 그녀의 엄격함은 많은 경우에 하나뿐인 가족이자 손녀인 헤더에게 향했다. 언제나, 그 애가 구겨진 옷깃이나 의미 없는 거짓말, 남긴 브로콜리 때문에 크게 혼나는 소리가 집 밖까지 크게 흘러나왔다. ... 그리고 사라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후, 교차로에 위치한 크림색의 2층 주택은 다소 음산해졌다. 회양목 울타리는 구석이 뭉개졌으며, 오렌지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허브들은 어딘가 시들시들한 채 간신히 숨만 붙어 있다. 귀를 굽는 것 같은 날카로운 바이올린 음색이 커튼을 친 창 밖으로 흘러나온다. 이제 헤더는 그 곳에서 혼자 산다.

- #헤더에 대한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헤더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짓말쟁이었다. 키가 어른 허리까지도 오지 않을 정도로 작은 꼬맹이였을 적에도 헤더는 자기 부모님은 영국에서 영화 배우로 일하는 종이라 바쁘다든가, 콩은 사실 아직 익지 않아서 맛이 없을 뿐이지 사실은 달콤한 과일이라든가 하는 사소한 거짓말과 꾸며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는 했다. 그래도 언제나 마지막에는 ‘사실 거짓말이야!’ 하는 말을 덧붙였기에, 그 애의 거짓말은 일종의 놀이로 받아들여졌다.

장난스럽던 거짓말과 상상 놀이가 유명과 저주에 대한 허언과 망상의 영역까지 악화된 것은 아마도 3년 전, 사라의 장례식 이후다. 장례식 이후로 한 달을 내리 쉬다가 학교에 온 헤더는 썩한 얼굴과 빛나는 눈으로 이렇게 소곤거렸다. ‘사실 말야, 사라는 아직 우리 집에 있어...’

텍관

Jacqueline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가 꽤 좋았지만, 사라의 장례식 이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에 나오지 않는 헤더 탓에 약간 서먹해졌다. 그래도 재클린은 집 나간 탕아를 향한 조심스러운 권유를 멈추지 않고, 헤더도 곤란한 일이 있으면 재클린을 찾는다.